

이상수, 한국 탁구 첫 남자단식 아시아 챔피언 등극

아시아선수권 대만선수에게 3-2 승
신유빈-전지희 여자복식 우승
중국 불참 속 한국 금 3개 수확

이상수(31·삼성생명)가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신유빈(대한항공)과 전지희(포스코에너지)는 한국 탁구에 21년 만의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안겼다.
이상수는 5일 카타르 루사일에서 열린 2021 도하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위안(대만)을 폴세트 접전 끝에 3-2(10-12 11-6 11-6 7-11 11-8)로 돌려세웠다.
이로써 이상수는 1952년 시작된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남자 단식 우승을 이뤘다.
앞서 1988년 니가타 대회 유남규, 1992년 뉴델리 대회 강희찬, 2000년 도하 대회 김택수, 2017년 우시 대회 정상은(한국마사회) 등 4명의 한국 선수가 남자 단식 결승에 오른 바 있지만, 모두 결승에서 중국이나 대만 선수를 이기지 못하고 2위에 자리했다.
지금은 부부의 연을 맺은 박영숙(은퇴)과 함께

2013년 부산 아시아선수권에서 혼합복식 금메달, 같은 해 파리 세계선수권에서 혼합복식 은메달을 합작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유독 복식에 강점을 보였던 이상수는 처음 오른 메이저 대회 단식 결승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올라운드 플레이어'임을 입증했다.
세계랭킹 22위 이상수는 27위의 마흔 살 베테랑 왕즈위안에게 고전했다.
첫 세트를 내준 뒤 내리 두 세트를 가져가며 역전했지만, 4세트를 내줘 승부는 5세트로 향했다.
이상수는 5세트 6-6에서 왕즈위안의 실책과 강력한 대각선 포핸드 드라이브 득점을 더해 8-6, 2점 차로 앞서나갔다.
왕즈위안이 추격해왔지만, 이상수는 백핸드 공격으로 10-8로 격차를 유지하며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다.
이상수의 되치기에 이은 왕즈위안의 공격이 테이블을 벗어나면서 이상수의 생애 첫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이 확정됐다.
앞서 한국 여자탁구 '신구 에이스' 신유빈(대한항공)과 전지희(포스코에너지)가 같은 날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복식 결승에서 두호이령-리호칭(홍콩) 조를 3-1(11-5 7-11 11-3 11-4)로 꺾고 우승했다.
한국 선수가 아시아선수권 여자 복식에서 우승한 것은 2000년 도하 대회의 이은실-석은미 조 이후



이상수가 5일(현지시간) 카타르 루사일에서 열린 2021 도하 아시아탁구선수권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포효하고 있다.



2021 도하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여자 복식에서 우승한 신유빈(왼쪽)과 전지희가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21년 만이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선전을 펼쳐 기대감을 끌어들인 신유빈은 자신의 두 번째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한국 여자탁구의 미래'라

는 타이틀이 허명이 아님을 입증했다.
한국 탁구는 이번 대회 금메달 3개를 수확했다. 그러나 한국 탁구가 아시아 정상권으로 복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대회에는 '최강'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 등으로 출전하지 않은 데다 일본, 대만 등 다른 메달권 나라들도 1.5-2진 급 선수들을 대거 내보냈다.

프로농구 시즌 돌아왔다

9일 개막 6개월간 열전...KCC·인삼공사·kt 우승 후보에

한국 프로농구 26번째 시즌이 막을 올린다.
KGC인삼공사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9일 개막해 내년 3월 29일까지 6개월간 열전을 이어간다.
공식 개막전은 9일 오후 2시 안양체육관에서 열리는 안양 KGC인삼공사-전주 KCC 경기다. 두 팀은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맞붙어 인삼공사가 4연승을 거두고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정규리그는 10개 팀이 6라운드 총 54경기씩 치른다. 이후 상위 6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펼쳐 챔피언을 가린다.
2020-2021시즌을 끝으로 구단 운영을 접은 인천 전자랜드를 인수한 한국가스공사가 대구를 새 연고지로 삼아 10개 팀 체제는 그대로 유지됐다.
새 시즌을 앞두고 사령탑이 바뀐 팀은 서울 SK 뿐이다.
SK는 지난 시즌이 끝나고 문경은 감독이 기술자문으로 물러나고 전희철 수석코치가 지휘봉을

잡았다.
SK에서 10년 동안 수석코치로 활동한 전 신임 감독은 프로 사령탑 데뷔 무대였던 지난달 KBL 컵대회에서 팀의 우승을 지휘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MVP)로 뽑힌 송교창은 KCC와 재계약했지만 인삼공사의 챔피언결정전 우승 주역인 이재도는 창원 LG 유니폼을 입는 등 각 팀의 전력 보강도 활발했다.
두경민(DB→한국가스공사), 허일영(오리온→SK), 김동욱(삼성→kt), 전주범(현대모비스→KCC) 등이 새 유니폼을 입고 팬들 앞에 설 이적생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 지 관심이 크다.
KCC와 재계약한 라건아를 포함한 올 시즌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 20명 중에서 KBL 데뷔를 앞둔 선수는 9명이다.
개막 당시 15명이 새 얼굴이었던 지난 시즌보다는 줄었다. 하지만 캐나다 국가대표 출신 앤드류 니콜슨(한국가스공사)과 세르비아 국가대표를 지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10개 구단 감독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낸 미로슬라브 라들리차(오리온), 미국프로농구(NBA) 경력자 오마리 스펠맨(인삼공사) 등 주목할만한 선수들이 여럿 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KCC와 챔피언결정전 우승팀 인삼공사 등이 올 시즌에도 우승을 다툰 전망이다.
KCC는 전력 누수가 거의 없었던 데다 국가대

표 슈터 전주범을 영입하면서 공격력을 강화했다.
인삼공사는 '봄 코트'를 휘저은 제러드 쉐린저와 재계약에 실패했지만 지난 시즌 우승으로 한뼘 더 성장한 국내 선수들의 면면은 리그 최강으로 꼽기에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막을 앞두고 가진 미디어데이에서 6개 구단 사령탑은 우승 후보로 kt를 꼽았다.

장애인체전 출전 광주시 선수단 선전 기원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격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시 선수단을 방문해 선전을 기원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대상 격려 방문을 진행했다.
5~6일에는 사격·당구·룬볼·사이클·농구·태권도·역도·육상·조정·골볼·볼링·배구 선수단을 찾아 격려금을 전달하고 응원했다.
이번 행사는 체전에 대비해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진행됐다.
장애인체육회는 7일에는 보치아·양궁·골프·수

영·게이트볼·테니스 선수단을, 8일에는 펜싱·탁구 선수단을, 10일은 축구와 배드민턴 선수단을 만나 격려한다.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경상북도 구미시 일원에서 열리며, 광주 선수단은 22개 종목에 412명(선수 286명, 임원 및 보호자 126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광주 선수들은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된 1년을 포함한 2년 동안 기량을 갈고 닦았다"면서 "광주시 장애인선수단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용규 수석부회장과 광주시장애인사격연맹 명진 회장 등이 사격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화해한 앙숙’ 켈카-디셈보 11월 매치플레이로 맞대결

골프계 대표적인 '앙숙'이었다가 최근 '화해 무드'를 조성한 브룩스 켈카와 브라이슨 디셈보(이상 미국)가 필드에서 돌만의 맞대결을 펼친다.
미국 골프닷컴은 6일(한국시간) 두 선수가 11월 2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더 윈 골프클럽에서 12개 홀 매치플레이로 대결한다고 전했다.
2018년 11월 타이거 우즈와 필 미컬슨(이상 미국)의 대결로 시작한 이벤트 대회 '더 매치'의 5번째 시리즈가 이들의 맞대결로 성사됐다.
켈카와 디셈보는 최근 골프계에 소문난 '원원지간'이다.
2019년 초 켈카가 유러피언투어 대회에서 선수들의 느린 경기 속도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자 디셈보는 자신을 겨냥했다고 판단해 반박한 것을 시작으로 걸끄러운 관계를 노출해왔다.
올해 5월엔 켈카의 방송 인터뷰 때 뒤로 디셈보가 지나가자 켈카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불화설이 증폭됐다.
여기에 일부 갤러리가 디셈보를 향해 켈카의 이름을 다소 변형한 '브룩시'라고 외치며 놀려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가 경고하는 상황까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미국과 유럽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의 미국 대표로 이들이 함께 포함되면서 단합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미국이 우승을 차지하고 이들이 포옹으로 자축하면서 어느 정도는 누그러진 모양새다.
켈카와 디셈보의 매치플레이는 2018년 우즈와 미컬슨의 경기 이후 '더 매치'에서 모처럼 열리는 1대1 대결이다. 첫 '세기의 대결'에서 미컬슨이 승리한 뒤엔 줄곧 2대 2 매치 형태로 열려왔다.
지난해 5월엔 우즈와 미컬슨이 미국프로풋볼(NFL) 전설 페이턴 매닝, 톰 브래디와 각각 팀을 이뤄 맞붙어 우즈-매닝 팀이 이겼다.
올해 7월 '더 매치'에는 미컬슨과 디셈보가 출전해 각각 브래디, NFL 스타 아론 로저스와 짝을 이뤘고, 이번 디셈보-로저스 조가 3홀 차로 이겼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2관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 부니베어: 애들이 줄었어요
3관	기적
4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5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보이스 매직 스쿨: 초보마법사 아우라의 대모험
6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9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보이스
7관 씨네카를	상자와 텐 링즈의 전설 국영환 황구는 뭇말과 격돌! 낙서왕국과 열두 네명의 왕자들 스틸워터, 캔디맨
8관 씨네카를	용과 주근깨 공주, 수색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오페라단 수시공연
헨젤과 그레텔
일시 : 2021.10.22.(금) ~ 10.23.(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412-2507

광주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 2021.10. 27.(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